

### 오대산 월정사의 모든 것

한국불교에는 사찰과 관련된 연구 사료가 거의 전무하다. 기껏해야 근 현대의 크스님들과 특정집단의 연구 만 거의 진행돼 왔다.

월정사 교무국장인 자현 스님은 최근 한국사찰연구총서의 첫 번째로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화엄성지 월정사의 일대를 연구한 <월정사의 유래와 한강의 시원>을 펴냈다.

책은 학진등재지 논문 중 오대산과 월정사 관련 논문을 정리해 한 권

으로 책으로 엮은 것이다. 자현 스님은 '월정사'의 사찰명칭에 관한 동양사상적인 검토를 비롯해, 오대산 불교의 시원 등을 밝히고 있다.

월정사의 유래와 한강의 시원 | 자현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8000원



### 간화선 수행의 나침반

선의 입문서이자 '간화선 수행의 나침반'이라 불리는 <무문관> (무문관)은 중국 남송 시대의 무문해개 선사가 수행에 요긴한 공안들을 제창한 것이다. 제자들의 개성에 따라 알맞다고 생각되는 몇 개의 화두들을 부여해 수행시켜 오다 그것들이 어느덧 48개가 쌓이게 되자 1228년 남송 이종황제의 즉위를 기념해 이들을 모아 '선수행의 지침서'로 엮었다. 박영재 교수(서강대 물리학

과)가 엮은 <무문관>은 화두 참구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추가했으며, 원문을 쉽게 파악하고 뜻을 분명히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무문관 | 무문해개 지음 · 박영재 엮음 | 북 펴냄 | 8500원



### 희망을 길어올 수 있는 최적의 장소

히말라야. 이름만 들어도 숨이 턱 하니 막히는 거대한 이름이다. 하지만 <가분하게 떠나는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의 저자 임연태는 'NO!' 라고 답한다.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히말라야는 멀어도 멀지 않고 높아도 높지 않은 마력 같은 산이라는 게 저자의 증언이다. 저자는 아직까지 국내에선 한 번도 소개되지 않은 히말라야의 피케이 픽 봉우리 코스를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히말라야는 모든 번민을 내려놓고 새로운 희망을 길어올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말한다. 가분하게 떠나는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 | 임연태 지음 | 이승현 사진 | 히말라야의꿈 펴냄 | 1만3000원



### 석양을 글로 풀어내다

2004년 <수필과비평>을 통해 등단했던 김대원 작가가 여러 수필집에 발표했던 글들을 모아 수필집 <백학산의 가을> (문학나무 펴냄)을 펴냈다. 문학평론가 김우중 前 덕성여대 교수는 작가의 글을 모네의 명작 '해돋이'에 빗대 '해지기(일몰)'와도 같다고 평한다. "우리 가슴 밑바닥에 부딪혀 오는 울림이 크다"면서, 책에 담긴 글 가운데 '석양' '백학산의 가을' '12월의 오후 다섯 시' '현

관에서 '아내의 빈자리' 등이 석양을 그려낸 듯한 것들이다. 한편, 작가는 11월 30일 소아암 환자를 돕기 위한 자선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백학산의 가을 | 김대원 지음 | 문학나무 | 1만2000원



## 톨스토이에게서 석가모니를 보다

<우담바라> 저자 남지심, 에세이집 '톨스토이와 흰 코끼리' 펴냄



톨스토이와 흰 코끼리 남지심 지음 모루와 정 펴냄 1만3800원

"삶 안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허무해서 어떤 것에서도 살아갈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어깨 위에 얹혀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다고 느꼈을 때, 가슴이 조여들도록 외로워도 떠올릴 얼굴이 없을 때, 저는 생을 마감하고 싶은 유혹에 깊숙이 빠져들곤 했습니다."

누구나 한번쯤 이런 생각을 한다. 소설가 남지심 씨(사진)도 마찬가지다. 그러다 남 작가는 고희(古稀)를 바라보고 있을 때쯤 깨닫게 된다. '그래, 네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은 인생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과정들이었어.'

남 작가는 17살 소녀시절 처음 손에 들었던 <톨스토이 인생독본>을 환갑을 넘긴 노인이 돼 다시 꺼내들었다. 그리고 이리저리 책갈피를 넘기며 그 안에 담긴 명언들을 자신이 살아온 삶속에 녹여 글을 쓰기 시작했다. 진실하게, 소박하게, 낮은 목소리로 고해성사를 하듯 말이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톨스토이와 흰 코끼리>이다. <우담바라>이후 20년 만이다. 책 제목이 왜 <톨스토이와 흰 코끼리>냐는 질문에 오랜 수행을 해온 불자다운 대답이 돌아온다.

"톨스토이는 82세에 가족과 작별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 나이에 집을 떠났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결국 톨스토이는 구원을 얻은 답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세상에 자신을 던져 넣은 거죠. 그 비장함이 도출현을 떠나 흰 코끼리의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는 석가모니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책에서 저자는 <톨스토이 인생독본>을 바탕으로 평생을 음미해온 동서고금 현자들의 고전 명구 중 56편을 에피소드와 함께 엮어냈다. 긴 세월동안 마음에 담아온 니체, 파스칼, 성경과 불교경전, 탐무드 등의 사상을 새기며 겪어온 체험과 같고 닮은 수양을 함께 녹여 잔잔한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다.

어린 시절 작가가 보았던 산골 마을의 '바보 부부'의 우직한 삶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보게 한다. 소록도에서 조차 밀려나 작은 섬에서 살고 있는 나환자 청년 송(松)과 벽안 수녀님의 플라토닉 사랑이야기를 읽으면 괜히 가슴이 아려온다. 이러한 공감과 치유, 휴식의 메시지 외에도 저자는 자



신이 겪은 뼈아픈 불효의 순간을 진술하면서도 잔잔하게 표현해 코골을 쫓게 만든다.

남지심 작가는 30여 년간 글 쓰는 일을 하면서 그의 작품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불타고 있는 화두가 있다. '얼마만큼 진실하게 다른 생명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나를 완성시켜 갈 수 있는가?'이다. 그가 추구하는 삶이란 상구보리화중생 하는 보살도의 삶이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캄보디아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은 일. 남 작가는 2009년 자비를 나르는데 수레꾼 모임을 만들어 회원들과 캄보디아 초등학교 학생 250명의 급식비와 학비를 지원하고 교사 월급을 지원하는 지원해왔다. 최근에는 학업비가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캄보디아 스님들에게 학비를 보냈고 우물과 땀을 만들어 식수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인들을 도왔다.

이제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은 남 작가는 금생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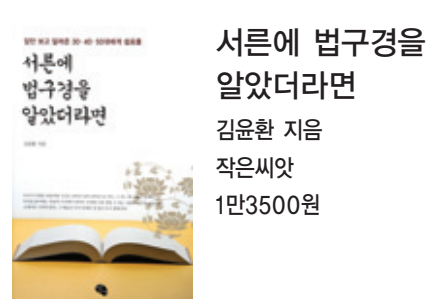
"우리 삶이 참 벅차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치 노새가 자기 몸집의 두 서너배 되는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무 소득도 의미도 없다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윤희를 믿습니다. 다음 생에는 한 단계 진급하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급하듯 말이죠. 금생의 삶을 통해 다음 생이 진급됐으면 하고 바람입니다."

하지만 남지심 작가는 이번 생에 이루고 가야 할 숙제가 있다. 아쇼카왕을 소재로 집필 작업을 마치는 것.

"한 스님이 아쇼카 왕을 써보라고 제안을 했어요. 아쇼카 왕이 참 대단한 왕이었는데 그 제안을 받고 너무나 큰 숙제를 받은 느낌이 듭니다. 인연이 닿아 쓰게 되면 아마도 마지막 작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글=이어나 기자 · 사진=박재환 기자

## 앞만 보고 달려온 이들에게 권하는 책



서른에 법구경을 알았더라면 김윤환 지음 작은씨앗 1만3500원

<법구경>은 불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한번쯤은 들었을 법한 경전이다. '답파타' 즉, 진리의 말씀이란 뜻을 가진 이 경전은 26장 423수의 시구로 구성돼 있다. 시의 형식을 빈 잡언, 간결한 노래 형식으로 쓰인 글은 누가 봐도 거부감 없이 다가온다. 불교적이기보다는 생활의 경우 같은 맑은 소리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서른에 법구경을 알았더라면>은 부산 지역 불자실업인 김윤환 영광도서 대표이사 기이 땅의 중 · 장년층을 위해 <법구경>을 가려 뽑아 정리 · 해설한 책이다.

저자는 <법구경> 구절마다 재미있는 이야기와 에피소드를 곁들여 읽는 이가 경전 구절에 담긴 심오한 말씀을 가슴에 쉽게 담을 수 있도록 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원수처럼 행동한다. 욕심을 따라 약한 업을 지어 스스로 고통의 결과를 얻는다. [愚人施行 爲身招患 快心作惡 自致重殃]"에는 '내게 필요하지만 남겨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소재를 담았다.

저자는 이 구절을 까치밥에 비유해 설명했다. 늦가을, 갈나무 가지 끝에 매달린 두어 개의 훅치는 감을 추수하면서 까치가 먹으라고 남겨둔 보살행이다. 저자는 "내게 필요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다 써 버리지 않고 여분의 것을 끝까지 남겨줄 줄 아는 사람이 되자"고 말한다.

이러 사랑도 마찬가지로 말한다. 마음을 모두 주 버리면 뒤를 따라 허탈감이 밀려온다는 것. 사랑을 다해버리고 나면

다음에는 아픔이 많아 울게 되고, 가진 것을 다 써버리면 불안해지고, 그리움이 너무 깊으면 몸져눅게 되고, 젊음과 건강을 유혹 속에 다 써버리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마음의 정도 다음 사람을 위해 남겨두는 것이 좋고 기쁨 · 슬픔도 다 내보이지 말고 얼마라도 감춰두면 더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한다.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조계종 前 포교원장 혜중 스님은 책을 "내 인생의 멘토" 같은 책이다. 당신도 진정한 멘토를 하나쯤 갖고 싶다면 서둘러 이 책을 소유하라"고 권했다.

책은 '앞만 보고 달려온 30 · 40 · 50대에겐 함몰'이라는 부제처럼 성공 · 부 · 명예만을 좇아 달려온 중년세대에게 자신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준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2	망설일 것 없네 당장 부처로 살게나	도법	불광출판사
3	힘내라 청춘	법륜	정토
4	엄마수업	법륜	휴
5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안성두 외	운주사
6	크게 죽어야 크게 산다	정찬주	김영사
7	지관수행	천태지의	비움과소통
8	인생을 낭비한 죄	박원자	돌
9	붓다를 죽인 부처	박노자	인물과사상사
10	간화선 청사자의 선	김태완	침묵의왕기

※ 불서출판사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 세계화 시대, 국내 최초로 일반 독자들에게 소개되는 간화선 영문지침서!

이제, 세계의 지성인들이 참선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얻는다.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 현각 스님이 번역하고, 세계적인 불교석학 로버트 버스웰 교수가 감수하고 극찬한 참선법문집!

동양정신문화의 골수인 간화선, 뉴욕의 상징인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전 세계의 지성인들에게 깨달음과 감동을 말한다. '세계평화를 위한 간화선 대법회' 법어 전문 수록.

"이 책에 실린 선사님의 가르침은 전통적인 것이지만, 그 응용에 있어서는 현대적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깨달음의 방법에 관한 선사님의 생각과 통찰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루이스 랭카스터 UCLA 명예교수

진제 대선사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일한 법맥인 경허-혜월-운봉-향곡 선사의 법을 이어받은 제 79대 법승으로 현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위원.

간화선 영문 법어집

# Open the Mind, See the Light

진제 대선사 지음 | 현각 스님 옮김 | 로버트 버스웰 감수 | 신국판 변형 양장 268면 | 값 20,000원

###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펼쳐진 "세계평화를 위한 간화선 대법회" DVD 출시(btn)

"오늘 밤 선사님과 대화는 세계의 놀라운 다양성과 국경을 넘어 다리를 잇는 인류 공동의 휴머니티를 우리에게 다시금 환기시킵니다." -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

"이번 역사적 행사를 통해 우리 모두를 한 자리에 모여 화합할 수 있게 하신 진제 선사님의 방문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BTN 특집 진제 대선사 세계평화를 위한 간화선 대법회 2011. 9. 15 뉴욕 맨해튼 리버사이드 교회 · DVD 2개 세트 | 값 15,000원 · 구입문의: 해운정사(051-746-2256)

